

2017년 12월 22일, 표선면 토산2리 토산2리노인복지회관, 문순덕(김은정·정이슬) 조사

제보자1: 김성현(남, 1934년생, 표선면 토산2리)

제보자2: 고광시(남, 1939년생, 표선면 토산2리)

- 줄거리: 남원리에 소곰뱃이 있는데 밤이 되면 귀신이 나타난다고 한다. 귀신 다리 밑으로 지나가면 아프기 때문에 날이 밝아 귀신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.

[조사자] 옛날에 어르신 학교에 다니는 길은 어떻 헛우과?

[제보자2] 우리 다닐 때 정도는 고무신 나완.

[조사자] 아침에 동새뱃이 가고 오면 헛것도 보고 할 거 아니파?

[제보자1] 헛게? 내 눈에는 안 베었어.

[제보자2] 그 헛거는 몸이 약한 사람만 봤어. 기가 엇인 사람은 도체뱃불이 저 바당에서 왓당 갓당 하는 거 봤다는 사람은 있어.

[제보자1] 옛날에 남원에 가든 소곰뱃이라고 있어. 지금은 어촌계에서 길을 잘 뿔앗지마는. 고등국민학교라고 뒤편 있는데 그디 소곰뱃이 막 으쓱혀주게.

그신새라는 도체비가 있어. 어떤 사람들은 그 도체비가 사람 지나가는데 과썩 선다고 하더라고. 그게 그신새라는 도체비인데 그 강알로 지나가게 뒤편 아프다고 하더라고 그게 나타나면 그게 사라질 때까지 아침까지 엇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.

[제보자2] 엇어질 때까지 기다리더라고.

- 핵심어: 소곰뱃(염전), 그신새(귀신), 남원리, 새벽, 도체비(도깨비), 바당(바다), 헛게(귀신)